

전남 서부권

‘진도 토요일속공연’을 일정 시작

내달 2일~11월까지 8개월간...13년간 474회 23만명 다녀가

남도여행의 대표적인 코스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는 ‘진도 토요일속공연’이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8개월 동안 풍성하게 펼쳐진다.

이, 관광객과 함께하는 진도 아리랑 등의 공연을 선보인다. 4월 9일에는 ‘아라리가 났네’를 주제로 아쟁산조를 비롯해 민요 ‘들노래’, 단막 창극 ‘화초장막’, 강강술래 등이 공연되며, 4월 16일에는 남도들노래 발전에 공헌한 고 조공례 여사 추모 14주기 행사로 남도들노래와 씻김굿이 펼쳐진다.

리랑의 곡절’을 주제로 진도 아리랑과 단막창극 ‘뽕파막’을 선보인다. 1997년 시작된 진도 토요일속공연은 지난 13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상설 공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474회 공연을 통해 23만여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연 관람 등 관광객 유입과 연결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4종(강강술래·남도들노래·씻김굿·다시래기)과 도지정 문화재 5종(진도북놀이·진도만가·남도잡가·소포 걸농악·땃배노래)을 비롯해 구전으로 전해오는 토속적인 민요와 민속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소형 어선 야간 항해장비 설치 지원

비용 50% 보조...목포시, 오늘까지 접수

목포시는 소형 어선에 야간 항해장비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소형 어선으로 낚지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안전하게 운항 및 조업할 수 있도록 소형어선 50척에 야간항해 장비구입비를 책당 25만원중 12만5000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있어 해상 충돌 사고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야간항해가 가능하도록 레이더반사기, 항해등, 정박등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목포시는 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 4월중에 설치지원 완료할 계획이다.



술 대신 환경정화...목포대 ‘착한 MT’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최근 신입생과 함께 하는 MT(Membership Training)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정화활동은 월출산 경포대 입구~무위사 일원에서 실시됐다. <목포대 제공>

“목포 향토음식 명인 찾습니다”

지역내 농수산물 원료...내달 1일까지 접수

목포시는 지역의 향토음식을 최고로 맛있게 독특하게 조리할 수 있는 명인·명가를 선발한다. 목포음식 명인·명가 신청자격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권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해 한식·중식·일식·양식 등으로 제조 가공된 음식을 요리하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으로 4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휴폐이지 공고란의 목포음식 명인명가 지정 신청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 음식명인·명가로 지정되면 명인·명가 인증서, 인증패, 대표축제시 부스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목포시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인신청을 지원한다.

영광 문예회관 기공

영광 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012년 건립된다.

영광군은 최근 이낙연 국회의원과 정기호 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영광 문화예술회관은 총사업비 238억원을 투입해 영광읍 남천리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6522㎡ 규모, 대공연장 657석·소공연장 242석·전시실 등이 들어선다.

완도 평일도 수중 암초 등대 설치

목포해양항만청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완도 금일읍 평일도와 총도 중간 해상 수중 암초에 등대를 설치한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이 등대는 지름 11m·높이 19.6m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등대가 설치되면 통항 선박의 안전은 물론 전복과 다시마 등 양식장을 관리하는 어업인의 사고예방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정착된 목포항만청장은 “섬이 많고 항로가 복잡해 위험 요인이 많은 서남해의 주요 항로에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의 안전 항해를 위해 해양교통시설 확충과 운영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5월 두 달간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과 더불어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북

“수학여행 학급별로 떠나요”

전주시·서울시 교육청·코레일 상품 개발 협약

전주시와 서울시 교육청, 코레일이 손을 잡고 학급별로 떠나는 한(韓)스타일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추진한다. 전주시와 서울시교육청, 코레일 서울본부는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송하진 전주시장, 박도현 서울시 교육감, 김복한 코레일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교육적 수학여행 풍토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자치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내 문화예술 관광교류 및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 전통문화 자산인 한옥마을 탐방을 비롯해 한지 뜨기와 관소리 배우기, 비빔밥 체험, 동헌(東軒) 등을 통해 전통문화와 한스타일을 테마로 하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산자원사업단 서해지사 31일 출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자원조성 사업과 연안생태계 관리 맡게 될 수산자원사업단 서해지사가 31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수산자원사업단은 부산 해운대구에 본사(2본부 8실)와 동·서·남해 3개 지사(6개팀 4사업소)규모로 정규직 120명 등 19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해지사는 군산시 장미동 옛 수산진흥원에 지사와 부안 역포에 사업소를 둔 직원 22명으로 출범한다. 서해지사는 앞으로 연안 바다복합

과 바다 숲, 인공어초, 수산 종묘양묘 등 자원조성사업과 연안생태환경, 기후변화, 자원조성평가와 같은 연안생태계 관리업무를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넘겨받아 수행하게 된다. 수산자원사업단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나눠 수행했던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통합 추진된다”며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수산자원 사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일괄’ 경남 vs ‘분산’ 전북 NH 이전 논의 본격화

‘경남이나, 전북이나.’ 동남권 신공항,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함께 3대 국정 현안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30일 정부가 신공항사업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하자, 이번 결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LH 이전문제를 위해 상반기 내에 매듭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LH 이전이 지자체별로 여건이 모두 달라 일반적으로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합의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을 택할 계획이다.

LH가 통합되기 전 대한주택공사가 이전하기로 했던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는 LH의 사장과 본사가 전부 이전해야 한다는 ‘일괄 배치’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하기로 했던 전북(전주혁신도시)은 사장과 본사 인력의 24% 이전을 요구하는 ‘분산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공항 사업 부산과 LH 이전 문제는 별개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분산배치 원칙을 밝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LH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산에 들에 녹색 무주 심어요”

무주 국립림관리소는 ‘세계 산림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최근 장수군 장수읍 시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벌였다. 이번 행사에서 매실, 대추나무 등 유실수와 약용수, 조경수 등 18종 4800여 그루를 1인당 3루씩 무상으로 분양했다. /무주 국립림관리소 제공

현제 LH 본사 이전문제를 두고 전북도와 경남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이전기로 했으나 이들 기관이 2009년 통합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단신

‘전북 공예품대전’ 작품 공모

전북도와 전북 공예협동조합은 전통공예의 계승발전과 공예산업육성을 위해 ‘제34회 전북도 공예품대전’ 작품을 공모한다. 출품분야는 목칠·도자·금속·섬유·종이·기타 등 6개 분야이며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북도 예술회관에서 출품작을 접수하면 된다.

익산시 내달 6~8일 ‘농기계 엑스포’ 개최

올해로 4회째인 ‘2011 한국농기계 엑스포’가 다음달 6~8일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개최된다. 전북도와 익산시, 한국농기계공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농기계회사 123개사가 참가해 최신 농기계를 선보인다.

남원농기센터 인공 수정별 보급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수정률 향상을 위해 인공 수정별인 ‘머리뿔가위별’과 ‘호박별’을 보급한다. 센터는 지난해 ‘남충봉아파병’ 발생으로 토종별이 집단 폐쇄해 자연계의 화분(花粉) 매개곤충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과실 수

정율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공수정별 보급에 나섰다. 매개곤충을 이용한 꽃가루 수정방법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과 함께 일손부족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김제보건소 읍·면·동 순회 한방 진료 호평

김제보건소(소장 이병철)가 올해 진보면 고사경로당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는 한방 진료를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순회 진료진은 관절염 환자와 만성 퇴행성질환자에게 뜸·침·투약 등 한방 의료서비스를 실시하

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환자에게 보건소 한방진료실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이병철 소장은 “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해 자기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063-540-1393)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